

신기능 저하가 위막성 대장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내과

정성원 · 이유민 · 이재훈 · 이강원 · 차정민 · 이지은 · 신진호 · 안선호 · 송주흥

The Effect of Renal Insufficiency on Pseudomembranous Colitis

Sung Won Jung, Yu Min Lee, Jae Hoon Lee, Kang Won Lee
Jung Min Cha, Ji Eun Lee, Jin Ho Shin, Seon Ho Ahn, Ju Hung So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배 경 : Clostridium difficile와 연관된 설사 (Clostridium difficile-associated diarrhea, CDAD)는 항생제 사용 후 장내세균 변화로 인해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에 의해 발생하는 위막성 대장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대장내시경 후 조직검사를 통해 위막성 대장염으로 확진된 CDAD 환자에서 임상적 및 검사실적 소견의 분석을 통해 신기능의 저하가 CDAD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방 법 : 1998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원광대학 의과대학병원에서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가 양성인 환자와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환자 452명 중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신기능 저하, 당뇨 및 악성종양의 유무를 조사하여 항생제 투여 기간에 따른 CDAD 발생 빈도를 비교하였다.

결 과 : 전체 환자 452명 중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를 검사한 환자는 444명 (98.2%)이었으며, 이중 양성 환자 418명 (94.1%), 음성 환자 26명 (5.9%)이었다. 전체 환자 452명 중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환자는 92명 (20.3%)이었으며, 이중 조직검사에서 위막성 대장염 환자는 56명 (60.8%)이었다. 위막성 대장염 환자 56명 중 신기능 저하 환자 8명 (14.2%), 당뇨병 환자 10명 (17.8%), 악성종양 환자 13명 (23.2%)이었다. 조직검사로 확진된 신기능 저하 환자 8명 중 5명 (62.5%)은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 검사에서 음성이었다.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당뇨 2명 (25%), 악성종양 환자 1명 (12.5%)이었다. CDAD 발생까지의 항생제 투여 기간은 신기능이 정상인 환자 보다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짧았고 (23.44 ± 3.28 일 vs. 11.13 ± 2.386 일, $p=0.034$), 정상인과 당뇨 및 악성 종양 환자에서는 (20.85 ± 2.221 일 vs. 25.50 ± 13.07 일, $p=0.289$; 23.30 ± 3.67 일 vs. 16.31 ± 2.31 일, $p=0.540$) 차이가 없었다.

결 론 : 면역력이 저하된 당뇨 및 악성종양 환자에 비해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CDAD 발생까지의 항생제 투여 일수가 적어 신기능 저하 상태에서의 항생제 투여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투여 후 발생한 설사 환자에서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가 음성이라 할지라도 환자가 대장내시경을 시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반드시 대장내시경과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CDAD를 감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